

BG POST

특 7(ready)호 23.01.15

BoardGamePost 2023

- Since 2022



[MarvelKR] 1월 설문 Report

2023년에는 보드게이머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설문조사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 중 한 커뮤니티는 마블 보드게임, 특히 최근에는 마블 챔피언스 카드게임을 주로 즐기는 유저분들이 모여있는 MarvelKR에 질문해 보았습니다.

질문 대상은 국내 발매 팩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응답자 16명

Q1. 제일 좋아하는 히어로 둘을 꼽아주세요.

- 1위: 스파이더맨, 캡틴아메리카(각 6명)
- 2위: 아이언맨(4명)
- 3위: 토르, 닥터 스트레인지(3명)
- 4위: 헐크, 호크아이, 앤트맨, 킥실버(각 2명)
- 5위: 블랙팬서, 스칼렛 위치(각 1명)

나머지 선택 없음.

다른 지표에선 코어 박스 구성의 인기가 높음에도, 히어로는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을 제외하면, 코어 캐릭터들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은 의외이다. 1, 2위 선호도를 보면, 밸류가 높은 캐릭터가 인기가 많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스파이더맨, 캡틴 마블인데 1턴 폭딜 때문이다.

Q2. 가장 좋아하는 성향(팩션)을 선택해주세요.

- 1위: 용맹(50%, 8명)
- 2위: 수호(25%, 4명)
- 3위: 정의(18.8%, 3명)
- 4위: 통솔(6.3%, 1명)

가장 인기가 많은 팩션은 용맹이고, 그 뒤를 수호가 쫓았다.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목적에 기여하는 용맹 > 정의 순으로 좋아하는데, 가장 좋아한다는 제한이 정의를 3위에 위치하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수호가 2위인 것은 의외이긴 하지만, 전문가모드를 즐기는 분들이 많다면 좀 더 선택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Q3. 가장 재미있게 플레이 한 빌런

- 1위: 울트론(31.3%, 5명)
 - 2위: 클로(18.8%, 3명)
 - 3위: 레킹 크루, 태스크마스터(12.5%, 각 2명)
 - 4위: 크로스본즈, 아르님 졸라, 레드스킬, 그린 고블린(6.3%, 각 1명)
- 나머지 선택 없음.

라이노는 워낙 튜토리얼이니 약세임은 그렇다 쳐도, 코어 세트의 빌런 둘이 인기가 많은 것은 재밌다. 기믹이 복잡하지도, 촌스럽지도 않으면서 강한 빌런에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Q4. 가장 출시를 기다리는 확장팩은?

- 1위: 갤럭시 모스트 윈티드(37.5%, 6명)
- 2위: 시니스터 모티브(25%, 4명)
- 3위: 뮤턴트 제네시스, 매드 타이탄즈 웨도우
(18.8%, 각 3명)

원래 출시되어야 하는 갤럭시 모스트 윈티드의 기대치가 가장 높았다. 곧 가오겔 3가 개봉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정상적인 출시순서이기도 한 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니스터 모티브는 출시가 예고된 만큼, 기다림이 표면화 된 것임을 알 수 있지만, 나머지는 각 캐릭터들에 대한 매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Q5.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콘텐츠

- 1위: 각종 팬메이드 번역, 마블 추천 텍
(37.5%, 각 6명)
- 2위: 마블 스토리 콘텐츠(18.8%, 3명)
- 3위: 오리지날 팬메이드 제작(6.3%, 1명)

마블 코어 출시 후, 한동안 이어졌던 팬메이드의 대량 번역 페스타가 잠잠해진 후, 많은 유저분들의 아쉬움이 큰 듯 하다.

이 점은.. 남아있는 팬메이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 팬메이드 제작자들의 제작도 1년 이상 멈춘 것이 이유 중 하나라고 이해해줘야 할 듯 하다.

결국 주어진 것을 어떻게 즐기느냐의 숙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추천 텍, 스토리, 오리지날 팬메이드의 숙제를 풀어보고자 한다.

또한, 추천 텍에 대한 열망이 많은 만큼 이어지는 카드 평가 콘텐츠를 통해 더 재밌는 이야깃거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Q6. 하고 싶은 이야기

1. 더 많은 캐릭터가 빨리 출시되면 좋겠다.
2. 마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3. 추천 텍이 있으면 좋겠다.
4. 많은 팬메이드가 번역되길 바란다.
5. MarvelKR 커뮤니티 파이팅

Q6. 하고 싶은 이야기

1. 더 많은 캐릭터가 빨리 출시되면 좋겠다.
2. 마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3. 추천 텍이 있으면 좋겠다.
4. 많은 팬메이드가 번역되길 바란다.
5. MarvelKR 커뮤니티 파이팅



이와 같이 유저분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마블 카드게임이 출시되기 전부터, 출시된 이후 그 재미를 느끼고 기대하는 바가 어마어마했음에도 이런저런 이슈들로 인해, 순수한 재미를 즐기지 못하는 상황은 저도 많은 아쉬움을 안고 있으며, 고작 커뮤니티 운영자 주제에 죄송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끔 들려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개 커뮤니티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블 카드게임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잔뜩 열려있다고만 믿을 뿐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다양한 작업을 통해 유저분들이 더 재밌게 신나서 이야기 나누는 날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스파이더맨 카드평가는 1월 22일까지의 결과를 통해 리뷰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고유 카드
평가하러가기(그림 클릭)

